

**2022년 8월 7일 “예수님의 비유(8) 천국의 율법학자” (마 13:51-52)**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 비유를 말씀하신 후, 제자들이 하나님 나라에서 감당할 책무에 관해 집주인에 비유하여 말씀해 주십니다.

**[1] 천국의 율법학자**

당시 율법학자(서기관 scribes)는 율법을 복사하고 가르치고 해석하고 보전하던 사람입니다. 율법이 최고 권위였던 이스라엘에서 이 일을 하는 사람은 사회/정치적으로 높은 지도층에 속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천국을 위해 훈련 받은 율법학자(제자들)는 창고에서 새 것과 낡은 것을 꺼내 오는 집주인과 같다고 말씀합니다. 새 것은 복음의 말씀을, 낡은 것은 구약 율법을 말합니다.

당시 이스라엘은 1500년간 율법과 선지자들의 말씀과 엄청난 씨름을 해왔는데 예수님은 “내가 율법이나 예언자들의 말을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아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성하러 왔다”(마 5:17)고 하십니다.

예수님은 율법을 간파하고 지키신 천국의 완벽한 율법학자입니다. 그리고 모든 제자들이 새 것과 옛 것을 꺼내 오는 집주인과 같이 복음과 율법을 잘 이해하고 살아내기를 원하십니다.

**[2] 새 것과 낡은 것**

신앙생활에서 최고 권위는 예수님 말씀입니다. 성도는 언제나 예수님의 복음으로 시작합니다. 사도 바울은 당대 최고의 성경(구약) 학자였습니다. 그러다가 예수님을 만나 완전히 예수님 중심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예수님 외에 아무것도 알지 않기로 작정했다고(고전 2:2) 말합니다. 그 또한 율법을 폐하지 않고 도리어 굳게 세운다고(롬 3:31) 말합니다.

그에게 율법을 세우는 방편은,

- i. 인용 – 예: 합 2:4 의인은 믿음으로 살 것이다 -> 롬 1:16
- ii. 재해석 – 레 19:18 네 이웃(동족)을 네 몸처럼 사랑하여라 → 롬 13:9
- iii. 폐기 – 할례법, 절기법, 제사법 등...

한 마디로 예수님의 말씀은 율법을 상회합니다. 이와 같이 집주인으로 비유된 천국 율법학자는 옛 것과 새 것을 다 잘 알고 통합할 줄 알아야 합니다.

**[3] 통합성을 요구 받는 천국의 율법학자들**

통합하는 일은 구약과 신약은 물론 사람의 사고와 삶의 여러 영역으로 확장되고 깊어져야 합니다. 옛 전통과 새물결, 다른 사상들, 문화, 인종 간의 통합은 역사의 주인의식을 바르게 갖게 하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무엇보다 사람은 내면의 불일치를 통합하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누구나 부정과 긍정의 요소들을 경험합니다. 슬픔과 기쁨, 분노와 평안, 느림과 빠름, 좋고 싫은 느낌, 욕망과 양보심입니다. 그러나

편의에 따라 한쪽만 취하면 내면의 통합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진정한 변화, 즉 성숙(성화)의 길을 갈 수 없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어떤 것이든 내 안에서 수용하고 걸러내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이 일을 죽음에 이를 때까지 합니다. 결국 사람은 임종 때 죽음과 삶의 통합의 시점에 이릅니다. 어떻게 죽는가와 어떻게 사는가가 통하는 시점입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생명 주신 삶을 굳게 세우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창고에서 옛 것과 새 것을 꺼내어 통합하는 집주인과 같이, 우리도 말씀과 모든 정황과 깊은 내면 안에서 진정한 통합의 길을 갈 때, 주님이 주시는 자유함과 평안의 선물이 풍성하게 부어지기를 축원합니다.

### <나눔의 질문>

1. 예수님 당시의 율법학자들과 '하늘 나라를 위해 훈련된 율법학자들'의 차이점은 무엇입니까?  
나는 신약과 구약의 말씀에 대해 어떤 관점을 가지고 읽고 있습니까?
2. 나의 삶 속에서, 우리가 몸담은 사회와 국가 속에서 통합되어야 할 것들이 무엇인지 말씀해 봅시다.